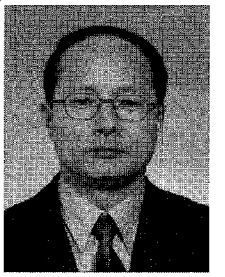
충북을 일으키는 큰 함성이 되어



전 충북 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 형 근

대통령자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협력국장
전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국장

충북민협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서울 중심의 운동만으로는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충북지역에 현실화함으로써 지역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충북에서도 민통련의 지역조직인 충북민주운동협의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지역의 운동역량을 모아 지역차원의 정치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최초의 조직이 된 것이다.

충북민협의 대 시민 입의 역할은 대중 유인물인 '함성' 지가 맡았다. '함성' 지는 수십회 동안 발간되며 당시 민주화운동 진영의 여러 주장을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선구적인 함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배포하고 지켜내는 데 뒤따르는 탄압과 폭력에 대해 분노의 함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엄혹한 시기에서의 충북민협의 외로운 행진은 투쟁과 압제를 반복케하는 불꽃이었으며, 인간의 기쁨과 사랑이 어우러지는 용광로였고, 역사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정표임과 동시에 그 장대한 주체였다.

충북민협의 창설과 활동

충북에서의 1980년대 초반은 학생운동과 종교운동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부문의 성격이 확연히 강화되었으며, 종교영역으로부터 독립된 운동의 기초들이 형성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선운동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부문의 활동인력이 준비된 시기였다.

1985년 4월 15일 충북민주운동협의회의 창립(장소 : 천주교청주교구 사직동성당)은 창립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충청북도내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축적이 총체적인 운동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며, 한반도 민주민중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전진시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반민족 반민주적인 집단의 온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면적인 투쟁의 선포였다.

충북민협은 지난 시기의 지역 민주화운동을 평가하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새롭게 설정한 토대 위에 성립하였다.

첫째로 제기된 것은 운동 인적자원의 재생산구조 확립이었다. 그간의 활동이 운동경험의 비축적과 운동의 감각적, 단편적 전개라는 부작용으로 운동의 활성화를 저해하였다고 보고, 각 단위가 자체조직의 정비로 재생산 구조를 시급히 확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둘째로는 지역운동의 자립적 토대구축을 위한 지역 실태 조사였다. 지역운동론 정립의 필요성은 지역 실태 조사를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시켜 놓았다. 직업별 인구분포와 도시빈민, 영세민의 집단주거지역, 공단지역, 노동현장 실태 및 운동사례, 소농과 빈농을 중심으로 한 농촌현황 및 실생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로 운동 지도부의 역량강화였다. 지도부의 운동이론, 실천론 정립의 부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넷째로 부문운동간 굳건한 연대운동의 부재에 대한 반성이다. 충북지역운동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부문운동의 고립성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충북민협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연대성 실현에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째는 대중기반의 형성 필요성이었다. 지나친 정치투쟁 일변도가 아닌 대중의 생존 조건에 맞는 전략과 전술, 문화운동의 활성화, 기층 민중에 뿌리를 내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조직이 없어 대중과 밀착된 운동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충북민협의 창립은 낙후된 운동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기반성으로 충북 민주화운동의 정

체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각 운동단체의 고립성을 지양한 연대운동으로 충북지역 사회민주화 및 민생문제 해결과 자주적인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지역적 합의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충북민협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충북기독청년협의회,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충북민주청년회, 재경충북민주향우회, 충북문화운동단체협의회, 충주지역, 재야인사(성직자등)등 공개 영역과 노동현장 조직, 학생운동 조직 등 충북지역의 운동역량을 총결집하여 만들어진 충북지역 최초의 단일전선이었다.

충북민협은 창립 후 조직을 정비하면서 5·18 진상규명대회 및 추모사진전을 개최하며 정치투쟁의 기반을 형성하고, 86년에는 충북 최초의 대규모 가두시위이며 정당, 재야단체간 연합전선이었던 개헌 현판식투쟁을 이끌었으며, 지역을 투쟁의 함성으로 뒤흔들었던 8월의 경찰폭력 규탄투쟁과 김형근 당시 충북민협 사무국장과 이주형 EYC 총무 등 지역 주요 활동가들이 구속되게 된 9월 농민가두시위와의 연대투쟁 등을 주도하며 5·3항쟁 및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건대항쟁의 발발 등 엄혹했던 그 해의 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하였다.

87년에는 4·13호헌조치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호헌철폐투쟁을 시도하여 6월항쟁을 주도하였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그 후 8월 충북 최대의 병원을 점거하여 조환동 어린이 사인규명 투쟁과 8,9월 노동자대투쟁 및 12월 부정선거 무효화투쟁을 함께 이끌게 된다. 88년엔 상반기에는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5공비리규탄투쟁을 중심으로, 하반기엔 분단올림픽 반대 및 공동올림픽 개최투쟁과 통일문제강연회, 북한바로알기 사진전 및 비디오상영, 남북청년학생회담 지원투쟁 등을 중심으로 대선 직후의 정세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충북민협은 선거국면 대응의 문제와 정치투쟁 중심의 민협본부와 부문운동 중심의 가맹단체간 인식의 괴리로 인해 통합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새로운 정립의 시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충북민협은 지역운동, 조직운동, 연대운동의 기치를 들고 비록 완벽한 실현은 되지 않았으나 지역연합운동의 책임있는 실체로서 국민운동본부를 통하여 6월항쟁의 수행을 감당하였다. 88년 4월과 89년 4월에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과 충북여성민우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는 당시 충북민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 지원하에 가능한 일이었다.

충북민협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서울 중심의 운동만으로는 이 땅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충북지역에 현실화함으로써 지역운동의 한 획을 그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타오르는 투쟁의 불꽃이여 - 되돌아 보는 그때 그 일들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호헌철폐 투쟁

87년 4월 13일,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인 호헌조치가 내려지자, 충북민협 집행부와 지도부는 대응방향에 대해 즉각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아직 전면적인 투쟁의 역량이 안되고 적극적인 투쟁은 운동권을 파괴하려는 정권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준비론도 있었으나 86년 개헌현판식 투쟁에서 보여진 대중의 투쟁의식에 대한 신뢰와 이후 건대사태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의 파국적인 정세는 공세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적극 투쟁론이 대세를 이루어 신속한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충북민협 집행부는 우선 지역의 목회자와 단체 대표자, 교수 등 신망받는 인사에게 호소하여 전국 최초로 호헌철폐 장기집권분쇄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을 계기로 호헌철폐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호헌에 대한 지역 민주화운동권의 대응의지를 지역민에게 분명히 하게 되었다. 충북민협의 이러한 대응이 정세에 조응하는 역사적인 투쟁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상황을 오판한 웃음거리 행동으로 전락하고 조직만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전체 지역 차원의 투쟁위 결성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대응의 구심을 형성한 이후 충북민협은 다음 단계로 지역인사들과 부문별 연속 투쟁을 조직하였다. 5월 11일엔 천주교청주교구 사제단 11명의 호헌철폐 단식이 시작되었고, 13일엔 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소속 목회자 23명이 청주제일교회에서 단식투쟁을 결행하였으며, 19일엔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의 목회자 45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을 잇게 된다.

이에 자극받아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과 민가협 등 제 단체들의 단식 및 성명발표가 계속되며 6월을 맞이하였다. 충북민협은 지역민에게 폭넓은 동의를 구하고, 파급효과를 높이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성직자와 교수 등의 개별적 투쟁형태인 단식을 조직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매우 적중했던 것이다. 충북민협은 이러한 각 부문별 행동이 있을 때마다

속보를 제작하여 신속한 홍보전을 전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다음 단계는 대규모 투쟁의 조직이었다. 충북민협은 예상되는 가두 시위에 대비하여 투쟁 지도부를 구성하였고, 학생운동과 긴밀한 준비논의를 전개하여 투쟁전술 등을 치밀하게 수립하였다. 드디어 투쟁의 계기가 도래하였다. 서울에서 6월 10일의 선언이 있자 3일 후 충북대학교 1만여 학생들의 거리진출이 이뤄졌다. 당시 이를 숨죽여 기다리던 충북민협 집행부의 감격과 흥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될 정도이다. 충북대생의 투쟁 이후 청주대, 서원대 등 각 학교 학생들의 거리진출이 줄을 이었고, 충북민협은 준비된 전술지도부와 시위 지휘자를 운용하며 이런 투쟁을 조직적, 연합적으로 전개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시위 현장의 연락병들과 체포에 대비해 여관을 잡고 진을 친 전술 지도부는 매 시간마다 시위상황 보고 및 다음 집결장소 지시를 주고받고 하며 경찰을 유린하는 체계적인 투쟁을 6월 한달 내내 전개하였다.

6월 29일, 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기까지 전개된 충북민협의 호헌철폐투쟁은 당시 옥쇄를 각오한 충북민협 집행부의 의지와 올바른 정세인식 및 투쟁방향 설정, 과학적인 전술운용과 그 동안 전개해왔던 지역 연대운동의 성과가 함께 어우러진 전국에서도 평가받을만한 모범적인 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충북 최대의 병원을 점거하고 전개한 조환동 어린이 사인규명 투쟁

87년 8월 18일 새벽 5시 30분경 짧은 머리의 괴청년 6명이 장현동씨(29세, 충북민주운동협의회 회원) 부부의 가정집에 난입하여 장현동 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그 후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가족들과 동료들이 애타고 찾고 있던 그 시간에 충북 내수 공군헌병대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간 장현동씨가 집단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8월 11일 고 조환동 어린이(시위진압 경찰기동대차에 치어 숨짐) 장례 당시 고 조환동 어린이 사망경위서를 찢던 공군중령을 병원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주동자라는 자백과 충북민주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민주운동의 활동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강요당하던 장현동 씨는 형언하기 어려운 수모를 당하였다. 공군헌병대는 눈을 가리고 40분 가량 차를 타고 야산에 가서 땅을 파며 생매장하겠다고 위협했고, 전투복을 입은 헌병대원들은 양 무릎에 봉을 끼우고 양쪽에서 밟는 등의 고문과 집단폭행을 자행하였다. 공군헌병대는 어처구니없게도 공군사병들을 동원하여 남궁병원을 둘러싸고 현장검증이라는 쇼를 벌인 후 수갑을 채운 채 공군헌병대 감옥에 집어넣었다.

장현동 씨는 경찰서로 넘어오기 전 여기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문답식의 이행연습조차 강요받았으며, 사실인양 가장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치밀한 공작에 강제로 허위진술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며칠 후에야 청주경찰서에 넘겨진 장현동 씨에게 달려간 가족과 충북민협 관계자들은 탈진상태에 멍투성이의 몸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장현동 씨를 만난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군부대가 어떻게 민간인을 납치, 감금하고 고문을 할 수 있냐며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갔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7년 8월 9일 6시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주최의 '민주정부수립과 민족통일을 향한 한마당' 이라는 평화적 대중집회가 폭력경찰의 사전 원천봉쇄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와 집단폭행을 당하며 강제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진압에 동원됐던 경찰기동대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조환동 어린이를 앞뒤바퀴로 깔아뭉개고 그대로 도주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조군의 사망직후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위해 국민운동충북본부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충북 최대의 남궁병원에 조군의 시신을 안치하고 대책위 사무실을 차리는 한편 전 지역의 운동력이 병원으로 총집결하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의 경위와 진상규명 및 경찰 뺑소니에 대한 책임규명,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벽보를 병원입구에 게시하였는데, 11일 오후 2시경, 30대 중반의 남자가 게시된 벽보를 갑자기 찢어버리자, 유가족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가족들은 기관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안으로 데리고 갔다가 후에 공군○○○○부대 중령이라는 신분이 확인되자 사과를 받은 후에 돌려보냈다. 이것이 공군부대가 민간인을 납치, 감금, 폭행, 고문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청주 한복판의 병원을 점거하다시피하고 병원 내외의 농성과 시위 등을 전개한 일 주일간의 투쟁결과 충북경찰 책임자의 사과와 관계관의 문책, 고 조환동 어린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투쟁은 종료되었으며, 직후에 터진 장현동 씨에 대한 고문건도 공군책임자의 사과와 불기소 조치로 마무리 되었다.